

Healing IV.

거짓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싶은 마음

1. 베데스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의 상황을 보여준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 행각 다섯 채가 있었고, 이곳에는 많은 환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 즐비하게 누워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복음 5:2-3) 그리고 그 곳에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환자가 누워있었다.

2. 예수님의 관점

이런 베데스다의 환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 먼저는 베데스다 못, 그리고 주변 행각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중에 38년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바라보신다. 예수님의 관점이 그 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를 찾으셨다는 사실이 놀랍다. 보통 이 정도 오래된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은 '오랜세월, 38년(5-6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병자중에 38년 오랜 세월동안 베데스다 못 주변에 치유를 희망하며 누워있는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는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질문하신다.

3. 예수님의 질문과 환자의 대답

[요한복음 5:6]

예수님은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자 병이 벌써 오래 된 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의 질문은 분명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고, 이것이 38년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있었던 마음이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언제나 분명하다. 모호하지 않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유'이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간음한 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다.

[요한복음 3:16-17]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좀 더 고상한 삶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분명하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다.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직면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분명히 물으셨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환자는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단순히 대답하면 된다. 그런데 환자는 의외로 다른 말을 한다.

[요한복음 5:7]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38년이라는 세월동안 베데스다 못 주변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베데스다는 못은 어떤 의미일까?

4. 막연한 희망

38년된 환자에게 베데스다 못이 들려주는 전설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이다. 사실, 베데스다 못은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여준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이 동할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치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율법이 주는 메시지는 이와같다. 남보다 먼저 또 월등하게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 남보다 월등하게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했다.

오늘 38년된 병자가 오랜 시간동안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이유는 ‘율법이 주는 막연한 희망’이다. 나도 먼저 들어가면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다.

5. 아닌줄 알면서도...스스로를 ‘안위’

1~2년도 아니고 38년을 누워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 정도 되면 베데스다 못이 나를 치유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질병의 해결은 인생전부가 되어버렸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런 시점에서 베데스다 못이 나에게 ‘희망’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절망이며, 나아가서 두려움이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안위했을 것이다.

“그래, 내가 지금처럼 어려운 이유는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면 반드시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된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 하실 때, 환자는 베데스다 못에 대한 자신의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 한 것이다. 이 막연한 희망이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못 주위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6. 거짓 희망의 무서움

베데스다의 거짓 희망은 환자에게 거짓 ‘안위’를 주어 이 사람을 38년간이나 ‘고통’ 속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무섭다. 38년동안 고통 속에 머물게 한 ‘거짓 희망’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분명히 아닌줄 알면서도 ‘씩은 동아줄’을 잡고 놓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죄성)’을 알아야 한다.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실제이다. 생명없는 종교가 무서운 이유는 ‘고통’에 대한 거짓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나는 반드시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다.

7. 승리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

믿음은 ‘언젠가는 좋아질거야’ 라고 마음먹는 막연한 신념과 다르다. 믿음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니다. 믿음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이것은 나와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보고있는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다.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일생을 보면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고 고백한 것이다.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았다. 내 힘, 내 방법으로 답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린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친 것이다.

믿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 때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내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8. 종교적, 흔적인 믿음의 파쇄

바울처럼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깨달음, 노력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 문제를 1%도 해결할 수 없는 껍데기이며,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다. 이 믿음이 속사람안에 새겨져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치유, 회복, 죄사함, 자유함,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8-9]

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9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은 너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미 치유받은 것이다. 회복된 것이다. 그 다음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승리가 우리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막연하게 있었던 '거짓, 생명력 없는 자리'를 걷어야 한다. 그리고 걸어가야 한다.

9. 생명력 없는 거짓 자리를 정리하라. 그리고 생명력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가라.

이제 썩은 동아줄을 잘라 버리자. 생명력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빈 방을 열어서 실패했다면, 빈 방을 부셔버리자. 어떤 미련도 갖지말자. 과감히 거짓 자리를 치워 버리자. 믿음은 실재이다. 하나님 나라는 실재이다. 이제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베데스다 못의 자리를 오늘 치워 버리고, 내 안에 생명의 왕 예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통치를 분명히 하자.